

200자 안내

능대들의 집

李然喆 · 李錫範 외 저

‘문학에의 순수한 열정과 모국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선언 아래 조직된 ‘作法’의 네번째 동인집. 「아버지」·「燔祭」(이연철), 「불타는 기린」(이석범), 「능대들의 집」(유재주), 「마지막 섬」(이유범) 등 동인들의 중·단편소설을 실었다. 문학평론가 金鍾會씨의 해설을 곁들였다.

삶과 함께 / A5신 / 262면 / 3000원

소리치는 흔적

심형준 지음

「월간문학」에 「소리치는 흔적」이 당선되어 등단한 저자의 첫번째 창작집. 수상작 이외에 「어떤 선물」 「뜨거운 땅」 등 11편의 단편을 실었다. 특히 묘사 위주의 전형적인 리얼리즘 수법을 구사한 「소리치는 흔적」은 간결한 문장과 세련된 언어구사가 돋보이는 작품.

카나리아 / A5신 / 270면 / 3000원

나와 영혼의 광세

閔丙秀 편

대학교수 100인의 에세이를 한데 묶은 책. 강의하면서 있었던 일, 추억과 감동을 담고 있는 사연들,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풍자 등 생활주변의 갖가지 이야기들을 풍부한 경력, 지식, 교양으로 들려주는 인생이야기를 7부로 나누어 실었다.

宇石 / A5신 / 336면 / 3500원

공정으로서의 정의

존 롤즈 지음 / 황경식 외 옮김

「사회정의론」의 저자로 유명한 롤즈의 논문 모음. 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후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 사회정의의 현대적 해석문제에 대해 일관된 관심을 보여준 저자의 학문적 결실이 잘 드러나 있다.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으로 나뉘어져 총12편의 논문을 실고 있다.

서광사 / A5신 / 374면 / 5000원

'88올림픽 일본어 가이드

鄭東柱 편저

올림픽에 대비한 일본어 교본. 올림픽의 발자취, 역대 올림픽의 특징, 올림픽 현장 등을 실어 올림픽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올바른 관전을 위해 각 경기별 개요와 실용정보도 곁들이고 있다. 일한대역판으로 일본어 통역안 내원이나 일본인, 한국인 등이 어학을 익히면서 올림픽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진명출판사 / A5신 / 180면 / 3000원

목사님 대답해주세요

박종순 지음

기독교방송의 ‘새롭게 하소서’프로의 신앙상담을 맡고 있는 저자(충신교회 담임목사)가 상담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일에 가게문을 닫을까요’ ‘진화론이 타당할 것 같은데’ 등 성경·신앙·생활 등의 문제를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믿음의 글들’ 53.

弘盛社 / A5신 / 238면 / 3000원

최신 낚시 입문

하서출판서 엮음

낚시의 기법에 관한 기초를 초보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한 책. 잡고자 하는 물고기의 습성, 낚시철, 포인트, 장비와 채비, 미끼 꿰는 법, 낚는 법 등을 다뤘다. 저수지 낚시, 바다 낚시, 계류 낚시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기법과 장비를 알려준다. 부록으로 ‘월척 낚시터 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하서출판사 / A5 / 254면 / 3500원

암의 모든 것

대한암협회 편

20세기 인류의 최대난치병이라 불리는 암에 대한 해설서. 암이란 무엇인가, 암의 역사, 종류에서부터 원인과 치료방법, 예방책에 이르기까지 암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의 40여명이 상세히 분석,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암환자를 위해 암환자의 재활, 말기암환자의 동통치료 등을 실고 있다.

해돋이 / A5신 / 316면 / 4500원

미래의 인기상품

상품조사연구회 편

미래의 인기시장은 어떤 것일까? 마케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예측한 책.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 그것에 따라 변화될 소비자의 가치관, 성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법 등이 흥미진진하게 소개되고 있다.

정성출판사 / A5신 / 210면 / 3000원

眞理의 門

이정 지음

불교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불교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등등 불교를 배우고 믿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 지침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부처님의 생애’ ‘믿음의 단계’ ‘불국정도의 건설’ 등 삶의 구체적 현장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쉽게 해설하고 있다.

대원정사 / A5신 / 151면 / 2500원

中共紀行

심철호 지음

네차레나 중공을 방문한 바 있는 저자(사랑의 전화 회장)의 중공여행 이야기. ‘죽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있던 중공대륙의 변화하는 모습을 상해의 뒷골목에서부터 북경, 심양, 연길, 천진 등 구석구석에서 포착하고 있다. 현지동포들의 삶 또한 감동을 준다.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곁들였다.

教保文庫 / A5신 / 336면 / 4500원

유아는 모든 것을 말한다

서케이 생어 지음 / 서혜원 옮김

의학박사가 쓴 육아지침서. 저자는 비디오와 심장박동측정기를 이용해 갓난아기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이른바 ‘유아의 마음’을 읽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토대로 씌어진 이 책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12개월 동안 부모와 아기의 의사소통문제를 주요 테마로 하여 육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삼중당 / A5신 / 234면 / 3000원

일본현대사

遠山茂樹 외 지음 / 박영주 옮김

55년 출간되어 유명한 ‘소화사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구판 「昭和史」의 개정본. 昭和역사의 전사인 1차대전 후에서부터 집필 당시인 1958년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역사를 낱알이 해부하여 전쟁과 전쟁추진세력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한울총서 70.

한울 / A5신 / 278면 / 3500원

경영과 컴퓨터

Henry C. Lucas, Jr. 지음 / 방성창 옮김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책.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초이론과 응용법, 각 기업체의 사용예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컴퓨터 이용의 장점을 현장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희성출판사 / B5 / 480면 / 8000원

사랑의 샘은 곳마다 솟고

김동리 지음

홍수를 앞둔 저자의 사랑에세이집. 「천당과 지옥」 「나의 부산시절」 「봄과 소생」 등 70여편의 글에 자신의 사랑, 철학, 인생관, 문학관을 담았다. 광범한 독서를 통해 얻은 저자의 풍부한 사고력과 직관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문학과 한국인간주의」 「유교와 기독교」 등 2편의 논문도 함께 실었다.

신원문화사 / A5신 / 320면 / 3200원

眞理의 門

이정 지음

초심자용 불교 교리지침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교에서 구하고 있는 책.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 또한 불교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려한 문장과 이론의 명쾌한 전개가 돋보인다.

대원정사 / A5신 / 152면 / 2500원

스케치활용법

이우봉 지음

일선 교회학교교사를 위한 스케치활용법. 성서학습이나 노래, 율동, 동화소개를 위한 교육자료 등에 필요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법을 설명한 책이다. 삽화에 대한 기초이론편과 ‘사람 그리는 방법’ ‘사물을 그리는 방법’ ‘복장과 표정 표현법’ 등 응용편으로 구성했다.

기독교문사 / B5 / 208면 / 3500원

우표와 올림픽

이재원 지음

올림픽의 태동에서부터 서울올림픽 개최까지의 올림픽과 우표이야기. 역대 개최국에서 발행한 기념우표를 자료로 이야기를 풀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림픽 문화행사인 올림픽필렉스 우표전시회, 올림픽현장, 올림픽관련기구, 스포츠용어, 우취용어 해설 및 카달로그 이용법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선진 / A4변형 / 206면 / 12000원

태양의 제국

J.G.Ballard 지음 / 임복영 옮김

저자가 소년기를 보낸 중국 상하이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쓴 전쟁모험소설. 태평양전쟁을 무대로 하는 이 소설은 11살난 소년의 눈을 통해 전쟁의 잔인함과 비참함,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를 극명하게 그리고 있다.

삼신각 / A5신 / 352면 / 3500원

新韓國史通論(KOREA)

ANDREW C. NAHM 지음

한국의 문화, 예술, 종교, 정치 등 모든 분

야를 광범위하게 다룬 영문판 한국역사서. 기존의 역사가가 고대사에 치중하던 반해 이 책은 근대사와 현대사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제도, 사회구조, 경제활동, 문화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재미시간대 역사학과 교수.

한림출판사 / A5변형 / 584면 / 1800원

實技教育方法論

林采植 외 지음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사들의 역할을 다룬 지도서. 학습의 개념, 교수-학습지도 발달의 유형에서부터 교수-학습지도 계획과정에 이르기까지 실기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었다. 특히 학습부진아의 지도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良書院 / A5신 / 310면 / 5500원

사랑은 운명처럼

김이연 편

부제는 '사랑의 세계문학산책'. 사랑을 주제로 한 16편의 세계명작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을 골라 한데 묶었다. 보바리부인, 안나 카레니나, 춘희 등 낯익은 여인들의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소설의 줄거리소개를 통해 혹은 저자의 이상성격 등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오늘 / A5신 / 310면 / 3500원

三等動物園

김희경 지음

장편 심층심리 테마에세이. 인간은 과연 일등동물일까, 아니면 삼등동물일까. 필자 특유의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파헤쳐보고 있다. 인간의 어둡고 깊은 내면엔 원초적인 충동이 도사리고 있어, 그 허다한 욕구가 원색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상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다.

백록출판사 / A5신 / 327면 / 3200원

마야문명의 신비

전규태 지음

부제는 '수수께끼의 고대유적여행'. 저자가 79년 10월 이후 약 일년 동안 「독서신문」에 연재한 기행문 「문명과 야생사이」 중 마야권에 관한 글들을 모았다.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의 옛 문명 유적지를 2년여에 걸쳐 답사한 마야문명탐색기록 25편이 실려 있다.

白文社 / A5신 / 246면 / 3500원

성령의 사람들

윤덕수 지음

사도행전 강해서 첫권으로 1~14장까지의 강해를 실었다. 이 책에서 저자(수유제일교

회 담임목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오늘날 왜곡된 성령관 혹은 교회관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풍만 / A5신 / 352면 / 5000원

기업과 야망(上·下)

아더 헤일러 지음 / 홍준희 옮김

현대 미국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파헤치는 일련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아더 헤일러의 장편기업소설. 막대한 자본과 생명이 걸려 있는 제약업계를 배경으로 일개 세일즈 여사원에서 최고경영자까지 승승장구하는 여주인공 켈리아를 통해 거대기업들의 갈등구조와 비리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文學出版社 / A5신 / 각권 300면 / 각 3200원

겨울肖像

송춘섭 지음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의 전작장편소설. 전통적 서사 스타일을 배제하고 일견 모순된 서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작중인물의 감정의 파동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펼쳐진다. 80년대 정치상황에 대한 암시가 복선으로 깔려지면서 우리 시대 젊은이의 내면의식을 작품화하고 있다.

문학과 비평사 / A5신 / 320면 / 3300원

역지로하기

편집부 엮음

'어린이 생활글 모음'의 첫번째. 경인지역 어린이편으로 경인지역 30여개 국민학교의 학생작품, 시 50편과 산문 52편을 뽑아 묶었다. 「아빠의 얼굴」 「집보기」 「돈이 뭘지」 「시험」 등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들로 구성된 이 책은 어린이들 특유의 솔직담백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글담 / A5신 / 136면 / 2000원



영인본

紅樓夢 (樂善齋本)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조선 정조·순조 이후에 번역·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홍루몽」 낙선재본 120책, 120회가 아세아문화사(대표 李昌世)에 의해 전 15권으로 영인돼 나왔다.

「홍루몽」은 정조 초기 淸나라의 曹雪芹

이 지은 미완의 대작으로서 한때의 부귀영화는 멸망으로 통하고 인생은 꿈이라는 주제를 기조로 하여 천상의 幻境과 지상의 賈氏 집안을 대응시켜 전개한 작품. 봉건시대 상류가정의 풍속사를 명징하게 파헤쳤으며, 중국 민족의 품격을 고도로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홍루몽」이 거의 초역이나 번안, 중역임을 감안할 때 이 낙선재 완역본은 대단한 가치를 지녔으며, 한국학 연구자료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譯文의 글씨(宮體)가 대단히 유려·淸勁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아세아문화사 / 전15권 / A5신 / 각권 700매내외 / 질가 250,000원

계간지

역사비평 (창간호)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연구의 대중화와 새로운 역사인식의 정립」을 지향하는 역사종합계간지 「역사비평」이 창간되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무크지 형식으로 출간되었는데, 이제 계간지 등록이 이루어져 세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특집으로 「해방후 학생운동의 민족사적 위치」를 마련, 40여년에 걸친 학생운동을

점검하고 있다. 「미군정기 국대안반대운동의 성격」(최혜월),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김동춘), 「반제반일 민족주의와 6·3운동」(이종오), 「3선개헌 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서중석),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김민호) 등을 통해 각 시기의 학생운동의 내용과 발전경로,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논단으로 실린 「과학적 민중론의 정립을 위하여」(백옥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민중개념의 위상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한독립 선언서의 실체」(송우혜)는 세칭 무오독립선언서를 실증적으로 분석, 그간의 연구가 빛을 오류를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물평전」 「국정교과서분석」 「악법열전」 「역사기행」 등의 고정기획란을 마련,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현실을 다양하고 생생하게 분석·비평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 A5신 / 374면 / 4000원

문예지

東洋文學 (창간호)

동양문학사 편



월간 문예지 「동양문학」이 창간돼 나왔다. 우리 문학이 서구 일변도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동서문학의 화해로운 공존 및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징검다리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은 林基原씨이며 주간은 朴眞煥씨(시인)가 맡았다.

창간기획으로 「오늘의 세계문학 진단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특집으로 엮었다. 「전위작가 47그룹의 고발문학」(독일·곽복록) 「망명문학과 관계문학의 대립」(소련·석영중) 「동양사상으로 접근해오는 신비주의」(영미·이영걸) 「젊은층 속에서 알파해진 유행문학」(일본·김춘미) 등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세계문학을 조명하고 있다.

鄭乙炳씨가 장편 「순례자의 빈손」을 연재하고 있으며 신상성씨(소설가)의 「한국스포츠문학의 가능성 진단」은 스포츠문학의 토착화 가능성을 진단한 글. 이밖에 원로부터 신인까지 의견을 제시한 「내가 바라는 문화정책」과 지상논단 「한글창제, 과연 단군인가」(이근수)도 관심을 모은다.

권말부록으로 「80년대 문학분야 박사학위논문목록」과 「장르별 문인주소록」이 실려 있다.

동양문학사 / A5신 / 520면 / 4000원